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가열

野 “김태호 자질·신재민 자녀 펀드 추궁”
與 “정치 공세는 차단, 의혹은 철저히 검증”

야 “공격 전방위 확대” 여 “정면 돌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그동안 집중하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공세에서 벗어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광부 장관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며 ‘전선 확대’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는 차단한다는 기본 방침 속에 채택된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의 전선 확대=야당의 공격과 여론의 관심이 계속 조 내정자에게 치우칠 경우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격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나섰다.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태호 후보자의 말 바꾸기와 구태 전시행정, 각종 의혹들을 낱알이 밝혀졌다”며 청문회 전까지 ‘김태호 실체 시리즈’를 발표키로 하고 이날 1차로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 사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처음엔 대

우하에 적극 찬성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하 포기 선언을 하자 ‘잘못됐다’며 반대로 돌아섰고, F1(국회자동차경주대회) 대회 백지화를 공약으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대회 유치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감찰일 의원은 이재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 부인 소유의 서울 중구 남창동 상가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면적이 4.79㎡로 신고돼 있는데 이번 청문회 자료에는 ‘신고오류 정정’이라는 사유를 첨부해 1.63㎡만 신고했다. 특히 2002년 분양받을 당시 신고한 4.76㎡의 분양가는 대지와 건물을 합쳐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년간 신고 내역은 최고 2800만, 최저 2000만원에 그쳤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세 딸이 학생 신분인데도 각각 수천만원의 펀드를 소유하고 있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정면 돌파=청문회에 정정당당히 임하겠지만 야당의 정치공세는 차단하겠다고 못박았다.

정육일 원내대변인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 대상자들) 일방적으로 비호할 생각이 없다”며 “정확히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진실은 우리 스스로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공격적인 사명감, 조직의 통솔능력, 국민에 대한 봉사까지 포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 공세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물증이나 자료를 갖고 검증하는 것이 맞고, 야당도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조현오 청문회’ 참석 고민

이재오와 같은 날 열려
타 내정자 의혹 희석 우려

23일로 예정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석 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한 유족에 대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 내정자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

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인사 청문회에 참석할 경우, 조 내정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같은 날 열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등 다른 내정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조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로 전락하면서 자칫, 조 내정자와 여권에 길을 터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재단, 조현오 고소·고발

노무현재단은 18일 ‘차명계좌’ 발원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재단 측은 고소 및 고발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검찰의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조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검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려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으며, 권 여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라든가 사람이 반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강연에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얘기해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정자 자녀 내신에 수능 성적 요구도

청문자료 신청 백태

‘8·8계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확정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줄다리기는 물론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겠다며 내정자 개인은 물론 주변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자 측과 관련 기관들은 자료 요구가 너무 방대하며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 마찰을 빚고 있다.

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및 총리실 불법사찰 의혹이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검찰에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는 점에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치열한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일부 장관 내정자 측에도 이례적인 자료 요청이 쇄하고 있다. 실제로 ‘내정자 자녀의 학년별 내신 및 수능시험 성적 일체’, ‘1970년 이후 내정자, 배우자, 자녀의 출입국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는 자료 요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내정자의 경우, 6촌 및 처가 형제에 대한 재산과 납세 내역, 자녀들의 생활기록부, 내정자에게 보고된 업무내역 일체 등의 자료 제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내정자와 배우자의 존안자료’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정자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검증도 좋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알권리 침해한 방송 쿠데타”

PD수첩 불법 정치권·네트즌 반발 확산

MBC가 17일 방송할 예정이었던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을 불법하면서 정치권과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PD수첩 불법은 1990년 우투과이라운드 방송권 분할 후 20년 만의 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조영태 대변인은 18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 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김재철 사장은 국민과 약속돼 있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사유화하고 개인방송화 하는 중대한 사체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결국 김재철 사장 시절의 이본 PD수첩 결정도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지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공영방송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전대미문의 방송쿠데타라 할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이 혼자 이번 사태를 꾸민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그 배후에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청와대의 위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등 야 4당 국회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MBC 사옥을 향한 방문하기도 했다.

성한 네티즌들도 방송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다음 아고라 청원서 명단에는 ‘PD수첩’이 불법된 직후인 17일 밤, ‘바꾸자’라는 ID의 한 네티즌이 “MBC는 PD수첩 ‘4대강의 비밀’ 방송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서명을 시작했다. 서명목표는 100만명, 서명 마감일은 한달 뒤인 오는 9월17일로 설정했다. 온라인 서명은 오후 3시 현재 1만명을 넘어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광주교육대학교(제2기)
개강일시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 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30명
수업시간	·매주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00,000 ·우체국:503557-01-005018(예금주:광주교대)
수료후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지교육진흥회 이사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 062)520-4243 010-9886-8964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기도 모른다면 즉 “나도 놓고 그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억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사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종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망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0년 2학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초급	9월3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관상고급	8월31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초급	9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사주명리학고급	9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27일까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등록시 10%감면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2일부터 전화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연구원장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 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 수강료: 300,000원
■ 문의: 175375-56-065137 예금주: 이종순
■ 모집인원: 각 과정별 25명

과정명	교육과목	개강/연수기간
제 11기 한자지도사 (기초반)	· 부수해설, 사자소학 · 1,800자(상용한자)자원풀이 · 중학교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별 지도법 · 중학교 한문교과과정 해설	토요일반 9월4일 14:00~18:00 월요일반 9월5일 09:00~13:00 / 2010.09월4일~2011.02월12일(24주)
	제 8기 한문지도사 2급 (기본과정)	· 추구집·명심보감 · 중·고교 한문교과서 단문/산문/한시 한문별 · 고등학교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 소학·대학 · 격몽요결·중용	월요일반 9월5일 14:00~18:00 / 2010.09월5일~2011년 2월11일(24주)

한문지도사 특급과정(논어,맹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수료후 특전
-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증 및 이수증 수여
- 각급학교(방과후학교) 감사 및 한자급수 시험반 출강
- 시·구원·문화·복지센터 한자지도반 강사
- 한문학원 개설 및 한자·한문지도 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국가공인자격관리 운영기관(사)한지교육진흥회 주관
광주시교육청수료분야(한자·한문)직무연수기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연수원 시행
문의안내 ☎ 062)366-9666, 367-8666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5기)	광주여자대학교(11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2010. 8. 30(월) 09:00 야간반:2010. 8. 30(월) 18:00	·금요일 오전반:2010. 9. 3(금) 09:10 ·토요일 오전반:2010. 9. 4(토) 09:1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2010. 9. 3(금)~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주·야간반 각 30명 ·심화반:주·야간반 기존전진생	·기초반:금·토요일 각 30명 ·심화반:금·토요일 기존전진생과 면접생
수업시간	·매주월요일 주간반 09:00~12:35 야간반 18:00~21:35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수강료	₩ 300,000 ·광주은행:074-107-004114 (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 300,000 ·광주은행:148-107-307803 (예금주:광주여대)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공공민간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회 및 학원개설 및 감사 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수료시)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 062)530-3873-5 ▶ 지도교수 : 010-2611-117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ie.jnu.ac.kr	▶ 문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 :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